

21세기의 도래와 濟州道民 意識

- 21세기, 濟州道民 意識의 전환을 모색하며 -

신 행 철
(인문대 사회학과)

차 례

1. 머리말 : 社會 변화와 意識의 문제
2. 21세기의 到來와 濟州道
 - 2.1 도래하는 21세기의 모습
: 정보사회(후기산업사회)
 - 2.2 국제화·지방화와 제주사회
3. 濟州 道民意識의 주요 장·단점들
- 국제화 시대에 관련하여 -
4. 국제화시대 濟州를 위한 濟州道民의 의식 전환
5. 맺음말 - 意識 轉換을 위하여 -

1. 머리말 : 社會 변화와 意識의 문제

이 글은 21세기를 맞으며 급변하는 흐름의 두 추세라고 할 수 있는 국제화와 지방화에 결부하여 제주도민들의 의식 행태를 재조명해 보고 제주인의 先進 意識 제고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사회 변화의 추세에 관련하여 굳이 의식을 논의해야 하는 이유는 인간의 의식이 사회 발전의 기초로서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서구 자본주의 사회의 발생에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하고,¹⁾ 일본의 경우 그 종교적 전통과 사무라이 정신(武士

道)이 明治維新 이래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였다고 한다. 사무라이 정신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마찬가지로 근면하고 검소한 생활 태도를 강조하면서 더불어 국가에 대한 헌신적 기여와 효도를 美德으로 삼았던 것이다.²⁾

한 때, 일차 세계대전의 당사국이 될 만큼 부강했던 터키의 경우를 보면 20세기 초 쿠데타에 의해 전제군주 체제가 전복될 때, 터키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지식인들이 그들 사회의 발전을 위해 그들의 문화적 전통이 되고 있는 전통적 이슬람의 가치 체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함을 역설하고 나왔다. 그리고서 터키인들은 자신들의 최고 가치를 상징하는 중심적 자리에 이슬람이 아니라 터키주의의 다시 말하여 민족주의, 케말(터키의 近代化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장군, 터키공화국 초대 대통령)주의를 올려놓았던 것이다. 이것을 계기로 의식 혁명, 정신 혁명이 일어나고, 이 정신 혁명이 그 사회발전의 기초가 되었던 것이다.³⁾

우리의 환경과 유사하다는 대만의 경우, 그 나라의 오늘의 현대화는 '中國文化 復興'과 '三民主義 再建'이라는 윤리 운동에 터하였으며, 덴마크의 경우 그 사회 발전의 기초에 구른트비히의 의식개혁운동이 존재하는 것이며, 天刑의 땅 사막을 일구고 거대한 아랍 제국과 맞서 자존, 번영하는 이스라엘의 경우, 그 번영의 밑거름이 되었던 것은 시온니즘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 같이 한 사회의 발전은 그 사회 성원들의 의식 개혁에서 온다. 사회 발전의 주동자는 그 사회 성원이고 그 주동자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는 그의 의식 상태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 변화의 흐름에 성공적으로 대응해 갈 수 있는냐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 이다.

1) Max Weber,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Allen and Unwin, 1930.

2) Robert N. Bellah, "Religious Aspects of Modernization in Turkey and Japan", *AJS* vol.64 pp.1~5, 1959; 박영신(역), 「사회변동의 구조」, 삼영사, 1981, pp.97~99참조.

3) 위의 글, pp.92~95참조.

21세기를 몇년 남겨 놓고 있는 지금 주변 상황은 대내외적으로 급변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지난 1세기에 맞먹는 변화가 앞으로 20여년 사이에 진행되리라고 한다. 그 변화의 물결은 우리의 의지를 초월하여 밀어 닥치고 있다. 분명 21세기는 엄청나게 달라진 모습으로 다가설 것이다. 이런 변화의 추세 속에서 어떻게 그에 대응해 가느냐 하는 것은 급변하는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중대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21세기 그 때 제주가 선진 지역사회가 되기 위해 지금 제주도민은 이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신속하고도 현명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세계를 향해 마음을 열고, 뜨거운 가슴으로 제주를 아끼는 만큼이나 냉철하게 자신들의 21세기 제주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오늘 제주에 사는 도민들에게 주어진 엄숙한 시대적 소명인 것이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 글은 도래하는 21세기의 시대적 흐름을 국제화·지방화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그에 대응하는 논리를 도민 의식에 연관하여 고찰해 보려는 것이다.

2. 21세기의 到來와 濟州道

2.1 도래하는 21세기의 모습: 정보사회(후기산업사회)

1991년 미국의 저명한 사회학자 다니엘 벨은 '21세기의 스토리는 아시아를 초점으로 해서 전개될 것이다'고 하면서 일본은 테크놀로지 수준이 높지만 노령화되어가는 사회로서 정치적 역할이 어떨지는 불확실하다고 하고 중국은 '어렵פות이 떠오르는' 사회로서 일본이나 한국사회의 아래 수준에 있다고 묘사한 반면, 한국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고 틀이 잡힌 사회'로서 통일이 된다면 더욱 그러하리라고 진단한 바 있다.⁴⁾

4) Daniel Bell. *The New world Order Toward The 21st Century*: 서규환 (역), 『2000년대의 신세계질서』, 도서출판디자인하우스, 1991. p.13. (『저자서문』 중에서)

흔히들 태평양시대의 도래를 이야기하는 터이지만 이 때 그 역사적 전개과정에서는 태평양의 서안, 아시아 3개국의 역할이 강조될 것임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다. '21세기 스토리'의 젊은 주역 한국은 이제 21세기의 길목에서 일대 격동기를 맞고 있다.

21세기 도래하는 사회, 그 첫번째의 모습은 후기산업사회(정보사회)이다.

인류사회의 시대적 전개의 맥락은 대체로 공업화와 관료적 조직 원리를 축으로 하여 볼 때 '농업사회(前期산업사회) → 산업(공업)사회 → 정보사회(後期산업사회)'라는 방향에서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⁵⁾ 앨빈 토플러는 농업사회의 등장을 제1의 물결에, 산업혁명에 따라 등장한 산업사회를 제2의 물결에 비유하고, 그 뒤 이어지는 정보사회의 도래를 제3의 물결에 비유하고 있다.⁶⁾ 이들 도식에 따르면 우리가 맞이하게 될 21세기는 인류문명의 발전에 일대의 획을 긋는 제3의 물결이 몰아치는 시대이고 이는 정보사회(후기 산업사회)의 도래인 것이다. D.Bell은 산업사회 이후의 사회인 정보사회는 "산업화 이후의 사회가 갖고 있는 특징 중 하나일 뿐 ... 산업화 이후 사회의 틀(postindustrial framework)이라 부르는 광범위한 일련의 변화 중 하나의 측면"이라고 보면서,⁷⁾ "한국은 현재 정보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한국은 정보시대를 맞이하면서 과거 어느 때 보다도 가장 많은 도전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한다.⁸⁾

정보사회(후기 산업사회)의 가능한 기본적 조건은 기술의 혁신·발전에 있다. 다니엘 벨은 산업사회가 등장한 후 적어도 세번의 기술혁명이 일어났는데 그 첫 번째 혁명은 200여년 전 제임스 와

5) D.BELL,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Basic Books, 1973. 참조.

6) Alvin Toffler, *The Third Wave*: 유재천 역, 「제3의 물결」, 문화서적, 1981. 참조.

7) D. Bell, 「제3의 기술혁명: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 한국전기통신공사 출판부, 1991. p.50.

8) 위의 책, p.44.

트의 증기기관의 발명에 의한 것이고, 100여년 전의 전기와 화학 분야의 혁신이 제2의 기술 혁명이며, 제3의 혁명은 컴퓨터와 전기 통신의 결합에서 이루어지는 전자기술 혁명 그것이다.⁹⁾ 후기산업 사회는 이 제3의 기술혁명을 그 기초로 하고 있다. 제3의 기술혁명은 ①기계 전기 시스템의 전자 시스템으로의 전환(컴퓨터), ②전도 장치나 전기파 변환장치의 소형화(칩:약 100만개의 회로부품 포용 가능), ③디지털 방식(정보 표현 방식의 숫자화) ④각종 소프트웨어의 개발(개인이나 가정, 작은 기업에서도 쉽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함.)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¹⁰⁾

전자기술 혁명에 의해 도래하는 후기산업사회는 세계를 거의 동일한 시간대로 묶어 주는, 교통·통신 및 새로운 과학산업이 등장하고 개방적이고 대등한 사회에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며, 기존 국제질서의 와해와 신생국가군의 폭발적 증가를 가져온다.

사람들의 다양한 문화 향수의 욕구가 증대하고 사회는 이런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소그룹 활동, 소규모 생산이 활기를 띠게된다. 지역단위의 문화활동은 활성화 된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¹¹⁾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정보사회는 그 특성상 국제화·지방화를 필연적으로 동반한다.

2.2 국제화·지방화와 제주사회

국제화·개방화와 지방화·분권화는 21세기의 또 하나의 특징적인 모습이 된다. 21세기가 시작될 무렵이면 안으로는 지방화·다원화가, 밖으로는 국제화·개방화가 그 변화의 커다란 줄기를 이루게 될 것이다.

국제화란 국제사회(세계)의 다른 나라들과의 정치적, 경제적, 문

9) 위의 책, p.62~67.

10) Daniel Bell, 앞의 책(1991), p.225.

11) E.F.Schumacher, *Small Is Beautiful*, Blond & Briggs, 1973. 참조.

학적 상호관계를 증대시켜 나아가는 과정이요 결과이다. 이는 전자 기술이라는 수단 때문이다. 전자기술 혁명에 의하여 컴퓨터와 통신 위성, 광섬유통신 등의 새로운 정보매체가 발달하게 되었고 이를 통하여 국제화는 가능한 것이다. 모든 사회체제는 국제사회에 대한 개방성을 증대시키게 된다. 개방화의 요구는 국제화의 필연적인 결과이다.

국가경제의 상호 의존성의 증대는 세계경제체제를 초래하며 수출은 국민경제의 존립 기반이 된다. 국가간의 경계는 붕괴되고 소위 지구촌화(전지구화) 현상이 나타난다. 지구촌화란 국제화의 하위 개념으로 볼 수 있겠는데 전체 지구가 하나의 단일 사회가 된다는 의미로서 '세계사회의 상호의존성이 증대하는 현상'¹²⁾을 말한다. 그 좋은 예가 공해·환경문제의 지구촌화 현상이다. 이런 시대에는 지구 곳곳의 온갖 변화들과 새로운 경향을 이해하고 그에 적응하지 못하면 국제적 미아의 신세가 된다.

국제화 시대의 문제는 대외 종속적 환경이 조성된다든가 비생산적이고 불건전한 외래 대중문화의 유입에 따른 문화의 정체성이 약화되는 등의 부정적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이다.

정보사회에서는 정보의 중앙 통제가 불가능하다. 정보의 통로가 개방적이기 때문이다. 지역적 다양성과 그 욕구를 수용하여 주는 것이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유지하는 길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보사회에서 지방은 중앙과 나란히 수 많은 지역들 중의 하나이다. 그리하여 국제화 시대에 지방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지방화는 지역공동체나 정치적 의사결정과 집행, 경제적 자원관

12) 이상철은 이를 두고 세계화를 파악하는 관점의 하나인 기능주의적 관점이라 지적한다. 또 하나의 관점은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세계화를 '지배강화-종속심화'라고 보는 것이다. 이상철은 이 두관점의 변증법적 지양을 제안한다. (이상철, "세계화, 세계화 담론 그리고 한국사회", 「인문학연구」 제1집, 제주대 인문과학연구소, 1995. pp.275~280.)

그러나 필자는 이 글에서 기능주의적 관점을 취하고 있다. 왜냐하면 제주도민들의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의식을 촉구하려는 의도 때문이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차후로 미룬다.

리, 문화의 창조 등 주요 공동체 활동에서 전체체계(중앙체계)로부터의 자율성을 증대시켜 나아가는 과정 및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방화가 국제화를 동반함으로써 '지방의 국제화'가 성립한다.

이러한 지방화는 국가 내지는 국민적 통합에 부정적인 모습으로 보일지도 모르며 부분적으로 그런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국가전체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자기결정의 원리를 확대함으로써 민주성을 확보하는 것이요, 경제적으로는 지역의 잠재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자원동원·관리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문화적으로 지역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함으로써 문화적 다원성과 창조성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문제는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이라는 전체국가체제의 요구와 지방 단위에서의 발전의 극대화라는 부분지방체제의 요구사이의 갈등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런 추세는 우리나라 전체의 미래 지향적 과제를 생각할 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특히 제주의 장래를 생각할 때 각별히 고려해야 할 추세인 것이다. 제주는 나라 안에서는 지방화의 물결에서 독자적인 자리를 확보하는 데 유리한 지역적 역사적 문화적 전통을 지녔고, 국제화의 흐름 속에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역으로 앞장서야 할 위치에 있다.

제주도의 경우 국제화의 흐름 속에서 21세기 태평양 시대를 맞으며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요충지와 한국의 전위지역으로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여기에 제주도는 변화의 와중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하루 속히 그에 대응하는 태세를 갖추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의 하나가 있다고 본다. 국제화·개방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급변하는 세기 말의 상황에서 보면 우리 제주도는 더 이상 중앙집권적 권위주의 질서 속의 변방이 아니며 절해고도의 폐쇄된 공간도 아니다. 제주도민은 '변방의 우짖는 새'¹³⁾로 머물러 버릴

13) 소설가 현기영의 소설 제목.

수도 없는 것이다. 지방화의 흐름은 이 점을 극명하게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국제화와 맞물리면서 제주도는 해양권과 대륙권이 맞닿은 요충지로서 개방된 공간일 수 밖에 없다. 도래하는 태평양시대에 제주도는 그 지정학적 비교우위 때문에 한국의 발전적 전위지역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제주도는 지리적으로 육지와 격리되어 있는 도서이며 지정학적으로 중·소·일 사이에 위치한 요충지로서,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는 시점에서 구체적 경제활동의 중심지로 부상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기도 하다. 이것은 국가의 경제발전과 번영이라는 차원에서 그런 국가적 요구에 따라 제주도가 담당하게 될 역할 수행의 측면에서 보아 더욱 그러하다.

제주도는 1991년 4월 한·소정상회의(노·고르비 회담)개최지로서, 그 회담이 성공리에 끝남으로써 국제지역으로서의 그 특수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입증되고 해외에 널리 인식되었다는 점, 수려한 자연경관과 독특한 민속과 ‘三無’의 생활 전통 등 국제적 매력을 갖는 문화 요소들을 갖고 있다는 점등은 도래하는 국제화시대의 국제적 활동의 무대로 고려될 수 있음을 예상케 해 준다.

지방화의 추세 속에서 보면, 제주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그에 적합한 지역이라 할 것이다. 역사, 문화, 자연의 독특함이 있어서 지방적 특수 이익이 보장되어야 할 지역으로 인정받고 있다. 1991년 말 도민적 의견수렴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으면서 제정된 ‘제주도개발특별법’이 그 징표이다.

3. 濟州 道民意識의 주요 장·단점들

- 국제화 시대에 관련하여 -

제주도민의 의식은 ‘三災’, ‘地瘠民貧’으로 표현되는 제주도 특유의 자연적 환경과 被虐의 역사성에 한국적 전통 요인이 결부되면서 형성된 것이다.¹⁴⁾

석주명은 1960년대 말에 출간된 저서 『濟州島 隨筆』에서 제주도민의 “장점으로는 陸國人에 比하여 氣概가 富하고 勤儉質實의 美風이 있어서 經濟思想이 發達하고 依賴心이 없고, 自營自足을 尊重하는 風이 강한 一面, 短點으로는 猜疑心이 强하고, 排他性이 濃厚하여 投書같은 일이 甚多하여 共存共榮의 정신이 적다”고 지적한 바 있다.¹⁵⁾

또한 현평효외 7인은 「탐라정신 탐구」라는 글에서 제주민의 전래적, 사회적 성격을 ① 自彊·不敗의 精神, ② 强靱·節儉의 精神, ③ 勤勉·實利의 精神으로 집약해서 지적하는 한편 바람직 하지 못한 면으로 劣等意識과 排他性을 들었다.¹⁶⁾

1993년 말, 제주도가 분야별 전문가 등 주요 인사 및 도·군·시 등의 공무원 349명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 자유응답식의 의견 조사¹⁷⁾에서 보면, 버려야 할 도민 의식은 보수적 배타심, 채면과 걸치레를 중요시 하는 의식, 상대방을 시기하는 행위, 근시안적 안목과 폐쇄성, 피해의식·열등의식 등이고, 장려해야 할 도민 의식은 근면, 자주, 독립정신, 근검·절약하는 조남정신,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 진취적 개척정신, 높은 교육열 등이다.

이 외에도 제주도민의 의식, 그 사회적 성격이나 기질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 왔으며, 논자에 따라 강조점의 차이를 보이고는 있지만 대체로 특징지을 수 있는 점은 ① 근검·소박한 생활태도와 자립정신 그리고 진취적 기상, ② 배타성과 열등의식, 猜疑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전자는 장점으로, 후자는 단점으로 지적된다.

근검·소박한 생활태도와 자립정신 그리고 진취적 기상은 자연적인 악조건과 역사적 시련에 부딪치면서 제주인들이 생존을 위한

14) 신행철, “제주사회의 기본적 성격”, 신행철외, 『제주사회론』, 한울, 1995, 서장 참조.

15) 석주명, 『제주도수필』, 보진제인쇄소, 1968, 111쪽 ‘인정난’.

16) 현평효외, “탐라정신 탐구”, 『논문집』 11집(인문사회과학편), 제주대학, 1980, 43쪽 ~ 44쪽)

17) 제주도, 『미래제주발전을 위한 제언-도민의견조사결과-』, 1993.

투쟁과정에서 형성되어 온 것이다. 제주사회는 韓半島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주변사회로서 제주도민은 외적의 끊임 없는 침입과 관의 가혹한 수탈에 시달리면서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으로 강력한 자립의 의지를 다지게 되었다. 더욱이 척박한 토질과 기후적 조건 속에서는 근면 만이 살아남는 길이었다. 勞動은 생활 그 자체였다. 노동의 과중한 부담에 처해서 생활의 비참함에 잠겨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극복하고 살아남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었다. 낮에는 밭에 나가 일을 하고 농한기에는 바다에 갔으며 밤에는 명석을 짜거나 짚신을 삼았다. 여자도 밭과 바다에 나가 힘든 일을 해야했으니 제주도민들의 삶은 온통 근면으로 점철된 것이었다.

여기에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중요한 氣質은 외부세계에 대한 동경과 선망이 가져다주는 외부에의 진출 성향이 강하다는 점이다. '이어도'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섬을 떠나는 데 대한 매력을 늘 갖고 있다는 점이다. 재일교포나 출가 해녀에서 볼 수 있듯이 해외 진출의 기회가 있을 때 제주 사람들은 과감하게 섬을 떠나 자신들의 삶의 세계를 개척하는 진취적 기상을 보였던 것이다. '이어도'의 의미는 理想鄉에의 추구이며 섬을 떠나지만 다시 돌아온다 즉, 어려운 자신의 환경을 벗어나 외부세계로 진출하지만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자기환원의 기상이다. 제주인은 제주에 살아남기 위해 '이어도' 엑소더스(exodus)를 감행하는 것이다. 이는 곧 부정의 부정 즉, 자기 긍정의 기상인 것이요, 제주인의 고난 극복의 정신이기도 하다. 이 '이어도' 정신은 자기 부정을 통하여 자신의 삶의 세계를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그런 기질로 승화되어 나타나게 된다.¹⁸⁾

그러나 제주도민들에게는 하로 바빠 청산해야 할, 의식 상의 단점들이 있다. 그대표적인 것이 배타성과 열등의식, 시의심이다.¹⁹⁾

18) 신행철, 앞의 글(1995), 참조

19) 그러나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 부정적인 측면의 의식인 열등의식은 현저하게 저하되고 있었다고 한다. (김향원의, "제주인의 의식과 제주정신의 정립", 제주대 동아시아연구소 KBS제주방송총국 주최 제주도승격50주년 KBS개국46주년기념 세미나 '도민의식 대토론회' 발표자료, 1996, 참조)

이는 제주도민의 90년대 후반에 이르러 생활능력이 고양되고 제주도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보여주는 대외적인 자신감의 표현이며 징후인 것으로서 앞으로 배타성도 완화될 것임을 예고해주는 징표이다. 왜냐하면 열등의식이나 배타성은 지난 시대 약자의 입장에서 강자에 대한 심리적 대응기제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열린시대를 맞이하여 제주사회가 적절히 대응 하는 데 매우 바람직스러운 현상인 것이다. 그것은 '고립된 주변문화의 특수성' 또는 '島嶼性' 그리고 외부의 지배와 수탈에 대응하는 방어기제로서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도민의 역사적 상황에 관련하여서 보면 高麗 때 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중앙의 지배는 관의 횡포가 노골화되어 나타났다. 100년에 걸친 蒙古의 압제는 그 영향력이 아직도 생활 유풍으로 남아있다. 이러한 역사상황 중에서 특히 인조~순조年間 약 200년(인조 7년~순조 34년: 1,629~1,834)동안 강요된 제주인에 대한 出陸 금지령은²⁰⁾ 빈곤한 상황을 벗어나 육지로 떠나는 것을 금지했을 뿐 아니라 제주인과 육지인의 결혼까지 불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정치 영역에서는 제주도가 조선조에 속해 있으면서도 문화적으로 완전히 봉쇄되어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특정 사회가 외부로 부터 고립되는 정도가 높을수록 내외집단의 구별 의식이 강화된다. 외부 세계인 육지에 대해서 선망을 하면서도 內集團意識을 바탕으로 거부감을 갖는다. 제주사람들은 본도와 본도 이외의 나머지 지역을 육지로 구분하고 그들이 처하는 외부적 환경에 적응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배타적 기질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는 바, 이 제주인의 배타성도 고립된 사회 구성원이 공통적으로 갖는, 외집단에 대한 강한 구별 의식에서 출발하는 것이다.²¹⁾ 이러한 구별 의식은 일상생활 속에서 제주/육지를 구분하는 二分法的인 표현양식에서 잘 나타나 있다. 제주도를

20) 김태능, 『제주도사논고』, 새기문화사, 1982, 53쪽.

21) 박재환, 『인간상호작용에 관한 제주도민의 사회의식』, 『논문집』 제9집(인문사회과학편), 제주대, 1978, 632쪽.

제외한 지역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는 '육지'라는 말 속에는 배타적 태도가 은연 중에 숨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되기도 한다.²²⁾ 따라서 외부세계인 육지에 대해서 선망을 하면서도 내집단 의식을 바탕으로 거부하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 島嶼의 자원 제약적 생활 조건 역시 제주인의 배타적인 사회적 성격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원이 부족한 島嶼 환경에서 보면 외래인의 유입은 자원 부족 상황을 더욱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배타적 성격은 급격한 사회변동에 대응하는 전략으로서 자신들의 정체감을 유지하려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정체감은 제주인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기능적 측면이 있음에 틀림 없으나 자칫하면 외부인과 외부 세계를 배제하는 제주인의 배타성을 다른 모습으로 지속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한편 생각하면 외부세계에 대한 선망과 동경은 강한 열등의식을 낳는 결과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열등의식과 훼손된 자긍심을 회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주인은 외부세계에 대해 배타적으로 대응하는 행위 양식을 발전해 온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도에서는 투서·고발·모함·질투·불신 풍조가 있다고 하고, 인제를 키우지 못한다 든가 자라가면 깎아내고 우뚝하면 잘라 버린다는 말을 가끔 듣는 터이지만 이것은 제주도민의 의식 저변에 상대방에 대한 猜疑心이 있는 징표라 할 수 있을 것이다.²³⁾ 계속해서 피해만을 보고 당하기만 하고 살아온 생활 경험에서 이런 의식이 형성될 가능성은 큰 것이지만, 그 외에도 제한된 자원 접근의 기회 구조는 도민들 사이에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게 하였다고 볼

22) 유철인, "제주사람들의 문화적 정체감: 주변사회에 있어서의 적용방식", 『담라문화』 5호, 제주대담라문화연구소, 1986, 74쪽. 또한 유철인, "일상생활과 도성: 제주도문화에 대한 인지인류학적 접근", 『제주도연구』 1집, 제주도연구회, 1984, 참조.

23) 이점에 대하여서는 김항원의, 앞의 '도민의식 대토론회' 발표자료에서도 지적되고 있다.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소한 규모의 사회 단위에서 전인적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경쟁 양상이 게임의 규칙을 넘어서서 치열해지는 경향이 있다.

韓國의 전통속에서 보면, 濟州道는 島嶼라는 環海的 격리 사회로서 문화적으로 정체성을 띠고 한국적 전통이 상당한 정도로 잔존해 있을 개연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제주도는 그 지리적 조건 때문에 과거 새로운 문화양식이 유입되기 곤란했을 것이지만 어떤 문화양식이 도착화 하면 그 변화에의 자극 또한 적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의 전통문화를 지배하는 요인으로는 샤머니즘과 儒敎를 들 수 있을 것인데, 1980년대의 한 조사에 따르면 제주도민의 의식 속에는 샤머니즘적, 유교적 성격의 의식이 강하게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²⁴⁾

4. 국제화세대 濟州를 위한 濟州道民의 의식 전환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대응하고 先進 濟州를 건설하기 위해 우선 중요한 것은 제주도민들 스스로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오늘날 지방화와 국제화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서로 상반하는 것 같은 두 추세 속에서 그에 대응하는 논리를 지역사회 자체에서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인식에서 오는 것이다.

국제화·개방화의 물결 속에서 제주도는 한국 제2의 중심지가 될 수도 있고 제주도민은 그 중심지의 주체적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어야 한다. 20세기 말과 21세기 초, 국제사회 재편성의 흐름 속에서 천년 전 장보고의 청해진이 오늘날 부활하여 태평양 서안 東北아시아 지역 경제권의 중심지로 제주도가 등장할 수도

24) 신행철, "제주도민의 사회·문화의식상의 전통성", 『논문집』 11집(인문사회과학편), 제주대, 1980. 참조.

있다는 생각도 해볼직한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당면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지역 중심적 사고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하고, 너무 왜소하게 좁쌀스레 굴고 있지 않은가도 반성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개방체제로의 대전환을 시도해야 한다.

우선 이제까지의 폐쇄적 사고에서 탈피해야 한다. 폐쇄적 사고란 제주도민의 의식 상의 단점으로 지적 되고 있는, 열등의식과 배타성의 연장이며 자신감의 결여에서 오는 自己卑下의 발로이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²⁵⁾을 인용하면, 새는 알에서 빠져 나올 때 창공을 향하여 날 수 있다. 알은 또 하나의 세계임에 틀림 없다. 그러나 날으려고 하는 새는 그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주는 하나의 생활 세계이긴 하지만 국제화에 대응하여 전진하려 할진데 그 삶의 세계를 넘어서서 세계를 향해 열린 가슴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된다. 제주도민은 스스로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마음을 열고 눈을 크게 떠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 고난의 땅을 벗어나려는 소극적 진취성을 오늘에 승화시켜 번영의 제주를 이룩하려는 적극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 지켜야 할 제주도는 발전된 선진지역 제주도이지 있는 현상태를 그대로 유지한 그런 제주도가 아닌 것이다. 또 지키려고 해서 지켜지는 것만도 아니다. 우리는 이 점을 19세기 말엽, 舊韓國 말 대원군의 쇄국정책의 결과 속에서 터득한 바 있다.

그리고 제주도민들에게 의식 상의 전통성으로 강하게 남아 있는 샤머니즘적 의식이나 官指向의식, 序列의식 등을 타기해야 한다. 샤머니즘적 성격은 神靈의 세계에의 자기 예속이며 정신적 자유의 포기로서 주체적 자아 실현을 가로막는다. 유교적 전통으로서의 관지향 의식이나 서열 의식은 중앙 집권적 권위주의 질서에 접합됨으로써 자율적 자기결정의 원리에 배치되는 생활 방식을 조장할 가능성을 높여주게 된다.

무엇 보다도 제주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를 키우는 것은 오늘날

25) 헬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

매우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다. 그러기 위하여 제주도민들 스스로 지적하고 있는 시의심을 버려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정당한 경쟁은 자신의 장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압도해야 하는 것이지만 어떤 사안에 본질적이지도 않은, 다른 사람의 개인적 약점을 들추어 내어 비난하고 자신의 약점은 은폐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국제화 시대에 이러한 태도로 대응한다면 제주사회는 정체될 수 밖에 없고 또 그런 대응이 용납되지도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의 강점을 조장하여 배우고 자신의 약점을 고쳐야 할 일이지 자신의 강점을 내세우기 위하여 상대방의 강점을 왜곡시켜서는 안된다.

지방화는 지역에 관한 문제를 주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면서 그에 대한 책임을 공동으로 지는 그러한 자세를 필요로한다. 주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부단히 討論의 과정을 거치되 설득과 양보가 따라야 하고 하나의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힘을 모을 때 가능한 것이다. 서로 자신의 의견에 집착하여 대립적인 의견을 비난하고 논쟁만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自決능력이 없을 것임으로 주민 자결의 원리가 하나의 허구에 그치게 되고 지방화의 기회를 놓치고 중앙·종속적인 지위로 회귀 하게 된다.

지방화 시대를 맞으면서 지역 문제의 地域自決原理를 大前提로 하여 제주도민이 제주 지역사회 발전의 주인공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이 때 필요한 것은 主人意識이다. 주인의식은 예속상태를 거부함이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려는 인간적 내면의 세계이다. 그것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個性의 신장, 自我의 실현 의지에 결부된다. 주인의식은 타율성을 배제하고 자율을 추구하는 정신이며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 극복코자 하는 자립정신인 것이며 남이 강요하고 위협한다고 굴종하지 않는 기상이다. 스스로 사회의 주인인 고로 사회에 대한 권리의 주장과 아울러 의무와 책임을 진다는 자세를 갖는 것은 당연하다. 자신의 사회가 잘못되는 데 대하여 스스로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하고 사회를 파괴하는 자 혹은 그 세력에 맞서 싸우려는 자세 또한 당연하다. 따라서 주인의식은 責任의식이며 높은 參與의식이기도

하다.

그리고 환경문제가 지구촌화 하는 상황 속에서 환경문제의 생활화가 필요하다. 폐품의 철저한 재활용, 유기적 분해가 되지 않는 상품의 생산 및 소비의 억제, 에너지 절약형 소비 습관(대중교통수단의 이용, 승요차의 소형화, 자전거의 이용 등)의 체득, 오염 물질 방출의 억제 등등...

그리고 도민들 각자는 도래하는 시대의 주인공이기 위해서 국제적 감각과 포용적인 주체 의식을 가져야하고 국제 언어 능력을 습득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보처리에 관한 제반 능력과 지식을 키워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각종 교육·연구단체는 대도민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방대학 중심의 산학협동체제를 구축하고 생산 현장과 대학, 연구소 등의 기술 접목을 위한 이노베이션센터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국제화 시대의 지방화는 '지방의 국제화'가 병행된다. 우리 제주도의 경우도 지방공공기관은 물론이고 민간단체나 개인 수준에서 외국의 다른 지역과 자유롭게도 활발하게 국제 교류를 도모해 나아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예컨대 관광지섬이라는 점에서 제주는, 미국의 관광지섬 하와이와 관광 개발에 관련하여 교류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물적 기반의 면에서는 제주 환경의 적정 관리를 통하여 제주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통신·교통시설을 비롯한 사회간접 기반시설의 확충을 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1차 산업의 기반을 국제화·개방화시대에 맞게 조정 구축하는 것도 물론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제주사회 발전의 사안들을 결정 행사하는 제주도 차원의 제도적 장치, 예컨대 도민협의기구를 조직 활성화 할 필요가 있으며 도 내외에 걸친 제주인들을 조직화하여 제주 발전의 문제에 공동 대처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반 갈등의 문제를 최소화 하고 도민적 에너지를 통합하여 제주사회의 흐름을 발전적 가치에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시민모임 같은 것을 구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맺음말 - 意識 轉換을 위하여 -

이제 까지 이 글은 제주도민들의 여러 의식 항목들 가운데 국제화·지방화에 초점을 두고 선별적으로 논의 하였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의식을 이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대응하여 전향적으로 전환해 갈 것인가.

인간의 의식이라는 것은 오랜 동안의 생활 경험을 통하여 형성된 것이라고 보면, 도민들의 긍정적인 생활 경험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그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부문들이 자기 혁신적으로 태도 전환을 해야 한다.

그 첫째의 부문은 地方 言論이다. 오늘날 도민들의 분위기나 그 의식 행태는 언론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외세에 대한 비판의 논리는 가치 판단에 따른 부정적 이미지의 확대 보다는 사실 판단에 입각한 그 대응 방안에 초점을 두어야 하리라고 본다.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그들과 똑같은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만큼 우리도 그들을 포용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세계인이 되는 자세이다. '자라 보고 놀란' 우리네 조상들을 기억하고는 오늘날 도민들로 하여금 '술 뚜껑 보고 놀라'게 해서는 안될 것으로 안다. 正論直筆은 진실을 보도하는 자세이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선진 제주 건설이라는 미래 지향적 가치를 추구할 때 濟州 言論의 진면목이 구현되는 것이지 부정의 논리 만을 가지고는 안된다. 감정적·선정적 '황색 저널리즘'은 더욱 안된다. 그러기 위해 제주 미래에의 밝은 비전을 가지고 시대의 흐름을 예리하게 꿰뚫어 보고 있어야 한다.

다음에 중요한 부문이 公務 行政 部門이다. 도민은 관료적 권위주의 속에서 官 指向的 의식이 팽배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공무원들의 행태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은 두 말 할 필요가 없다. 관의 횡포가 외부 세계에 대한 도민의 배타성을 초래한 요인이었음을 명심할 일이다.

公務는 民을 위한 서비스이다. 도래하는 후기산업사회에서는 정

부 활동은 5차 서비스 산업인 것이기 때문에 공무에 상품 개념을 적용함이 마땅하다. 그 서비스 산업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공무원은 서비스 상품 판매원이라는 생각을 해야하고, 관료적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서 봉사 의식을 가져야 한다. 공무원은 민 위에 군림하는 규제자가 아니라 민과 더불어 가는 봉사자라야 한다. 능동적으로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친절하게 홍보도 해야 한다. 여기서 민의 관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피해 의식에서 벗어나서 개방적이게 된다.

다음은 外部 投資 部門이다. 도민들의 외부세력에 대한 폐쇄성은 그 외부 세력의 횡포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외부 투자자들은 그들의 활동이 이윤 추구에만 있지 않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한다. 자본은 지역사회와 '더불어 산다'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 때 외부 투자자들의 도덕적 양심에 호소할 수도 있겠으나 그 보다는 그렇게 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도민적 성원도 동반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신뢰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해야 한다.

각종 교육·연구단체는 대 도민 의식 전환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할 필요가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 교육은 물론 사회와 가정 등 모든 교육 과정 속에서 채택되어 활용되고 언론 매체를 통해 응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민들은 스스로가 도래하는 시대의 주인공이기 위해서 국제적 감각과 포용적인 주체 의식을 가져야 한다. 중앙 지향적, 관 지향적 자세를 과감히 버려야하고 과거 지향형 사고 즉 전통 속에 안주하려 해서도 안된다. 미래를 지향하는 변화의 주동자라는 자세를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국제화 시대의 지방화는 '지방의 국제화'가 병행된다. 우리 제주도의 경우도 지방공공기관은 물론이고 민간단체나 개인 수준에서 외국의 다른 지역과 자유롭고도 활발하게 국제 교류를 도모해 나아 가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이 세기말적 대 전환기에 제주도민들은 주체성을 유지하면서도 폐쇄성에서 과감하게 탈피해서 개방적 자세를 취하고 미래 지향의

생활 원리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국제화, 태평양시대의 전위 지역으로서 그 대응 전략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 국제화를 위한 하부 구조인 공항, 항만, 통신·전산망 등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하고, 비교우위산업(예,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해야 하며, 지식산업(연구, 교육) 등 제5차산업 부문을 육성해야 하며, 외래 문화 침투에 대비한 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한다.

전환기에 있어서는 기득권 세력으로 현상 유지에 급급하기 보다는 사회개혁의 주도세력이 됨으로써 21세기 다가오는 사회의 핵심적 위치에 설 수 있다. 그러기 위하여 배타성을 버리고 개방적 자세를 지니되 정체성을 유지해야 하고 확고한 규범적 생활원리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제주도민은 한 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서도 합리적으로 이를 극복하면서 살아온 저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저력으로 오늘날 당면하고 있는 급변하는 현실을 능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지만, 한 마디 첨언해 두고자 한다.

영국의 석학 아놀드 토인비의 문명 사관의 명제인 '도전과 응전' 원리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다가오는 도전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민족만이 앞서가는 민족이 된다. 비단 지역사회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지정학적으로 시대적 변화의 요충지가 되고 있는 우리 제주사회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고 생각한다. 급변하는 시대에 우물쭈물 하다가는 어느날 갑자기 '변했구나' 할 때는 이미 늦은 때이다. 급변하는 시대에는 과거에서 실마리를 찾을 것이 아니라 미래의 예측 속에서 삶을 설계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지 못하면 정체·퇴보한다는 점을 명심할 일이다. 地政學的으로 시대적 변화의 요충지가 되고 있는 제주사회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김태능, 『제주도사논고』, 세기문화사, 1982.
- 김항원외, “제주인의 의식과 제주정신의 정립”, 제주대동아시아연구소 · KBS제주방송총국 주최 제주도승격50주년·KBS개국 46주년기념세미나 ‘도민의식 대토론회’ 발표자료, 1996.
- 박재환, “인간 상호작용에 관한 제주도민의 사회의식”, 『논문집』 제9집(인문사회과학편), 제주대, 1978.
- 석주명, 『제주도수필』, 보진제인쇄소, 1968.
- 신행철, “제주도민의 사회·문화의식상의 전통성”, 『논문집』 11집(인문사회과학편), 제주대, 1980.
- 신행철, “제주사회의 기본적 성격”, 신행철외, 『제주사회론』, 한울, 1995.
- 유철인, “일상생활과 도서성: 제주도문화에 대한 인지인류학적 접근”, 『제주도연구』 1집, 제주도연구회, 1984.
- 유철인, “제주사람들의 문화적 정체감: 주변사회에 있어서의 적응방식”, 『탐라문화』 5호, 제주대탐라문화연구소, 1986.
- 이상철, “세계화, 세계화담론 그리고 한국사회”, 『인문학연구』 제1집, 제주대 인문과학연구소, 1995.
- 제주도, 『미래제주발전을 위한 제언-도민의견조사결과-』, 1993.
- 헬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
- 현기영의 소설 『변방에 우짖는 새』
- 현평효외, “탐라정신 탐구”, 『논문집』 11집(인문사회과학편), 제주대학, 1980.
- Alvin Toffler, *The Third Wave*; 유재천 역, 『제3의 물결』, 문화서적, 1981.
- Daniel BELL,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Basic Books, 1973.
- Daniel Bell, 『제3의 기술혁명: 그에 다른 사회경제적 변화』, 한국전기통신공사 출판부, 1991.

- Daniel Bell, *The New world Order Toward The 21st Century*; 서규환(역), 『2000년대의 신세계질서』, 도서출판디자인하우스, 1991.
- E.F.Schumacher, *Small Is Beautiful*, Blond & Briggs, 1973.
- Max Weber,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Allen and Unwin, 1930.
- Robert N. Bellah, "Religious Aspects of Modernization in Turkey and Japan", *AJS* vol.64, 1959; 박영신(역), 『사회변동의 구조』, 삼영사, 1981.